

- I.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 ▶ II. 경관조명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스테이트 타워 남산 (2011)’
- III.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사례

경관조명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스테이트 타워 남산 (2011)’

정 미
(이온에스엘디(주)대표이사)



1. 대상지 분석

1-1. 건축적 특성

서울 도심의 중심부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6-11번 지 일대에 위치한 스테이트타워 남산은 2011년 준공된 지상 24층 지하6층의 업무시설이다. 회현 사거리에 위치하여 북측, 서측 2개의 건축 입면이 대로를 마주하고 있다. 건축물은 네 모 반듯한 형태가 아닌, 서측 입면은 각도의 변화가 있고, 상층부와 입구는 각각 모서리 부분이 들려 올라간 모양이다. 파사드는 격자 무늬 루버가 사선과 수직으로 이루어져있어 바라 보는 각도와 시간의 변화가 건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1-2. 입지적 특성

회현고가의 철거로 퇴계로, 소공로 등 주변 도로에서 조망이 좋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도심2축 관광문화축으로 이 지역이 강남에서 중구의 출입을 알리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야간에 정체될 수 있는 구간에서도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차별화된 경관 조명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은행, 제일은행 건물 등 문화재가 있고, 노후된 건물과 신식 건축물이 함께 공존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매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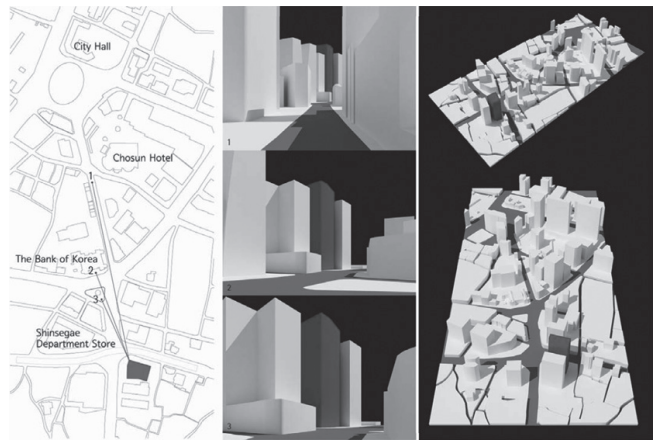


그림 1 주위 현황도

2. 경관조명 연출

2-1. 연출 전략

대상지와 건축 분석을 통하여 야간경관 디자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첫째,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 둘째, 화려함보다는 고풍스러운 경관조명. 셋째, 도시의 상징이 되는 경관조명. 마지막으로 음영을 통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제고시키는 경관조명이 되어야 한다.



그림 2 연출 전략 설정

2-2. 연출개념

경관조명 연출개념은 도시의 창'으로 전통창호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의 전통미를 빛으로 표현하고 도시의 풍경이 투영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변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짙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무모한 밝기를 이용한 돋보이기 위한 조명 보다는 빛의 위계를 두어 질서가 있는 조명계획을 수립 하였다. 또한 화려한 컬러와 빠른 움직임의 조명연출을 지양하고 . 빛의 음영을 통해 건물의 윤곽을 부각시키는 조명수법을 통해 개성적이고 독특한 연출로 중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연출개념을 표현 가능하게 하는 조형 언어로는 빛의 색온도 차이를 고풍스러운 명암의 아름다움을 주어 공간의 볼륨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옥탑부만 강조되는 경관조명이 아닌 입면 전체를 활용하는 연출로 건축 형태를 강조하면서, 모서리가 강조가 되는 강한 빛과 미디어파사드 연출면을 배치하여 강조점을 만들어 야간경관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도록 하였다.

2-3. 연출 스케줄

경관조명은 동절기 기준 저녁6시 점등하여 밝기 100%를 유지하다 23시 까지 점차적으로 밝기를 줄여 전체 소등된다. 강한 빛으로 이루어진 측면의 수직적인 브라켓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는 22시에 소등된다.

3. 미디어파사드

3-1. 연출범위

미디어파사드의 연출범위는 5층에서 10층 커튼월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의 건축의 높이가 낮지 않으나 주변 건물들의 높이가 비슷한 고층건물들이 인접해있고, 회현 사거리의 폭이 넓어 건물의 중·하층부를 중심의 시퀀스가 형성되어 차량 이용하거나 보행 시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18:00 Lighting Level: 100%]



[20:00 Lighting Level: 70%]



[22:00 Lighting Level: 50%]



[00:00 Lighting Level: 0%]

그림 3 경관조명 운영 스케줄

특집

- I.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 ▶ II. 경관조명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스테이트 타워 남산 (2011)’
- III.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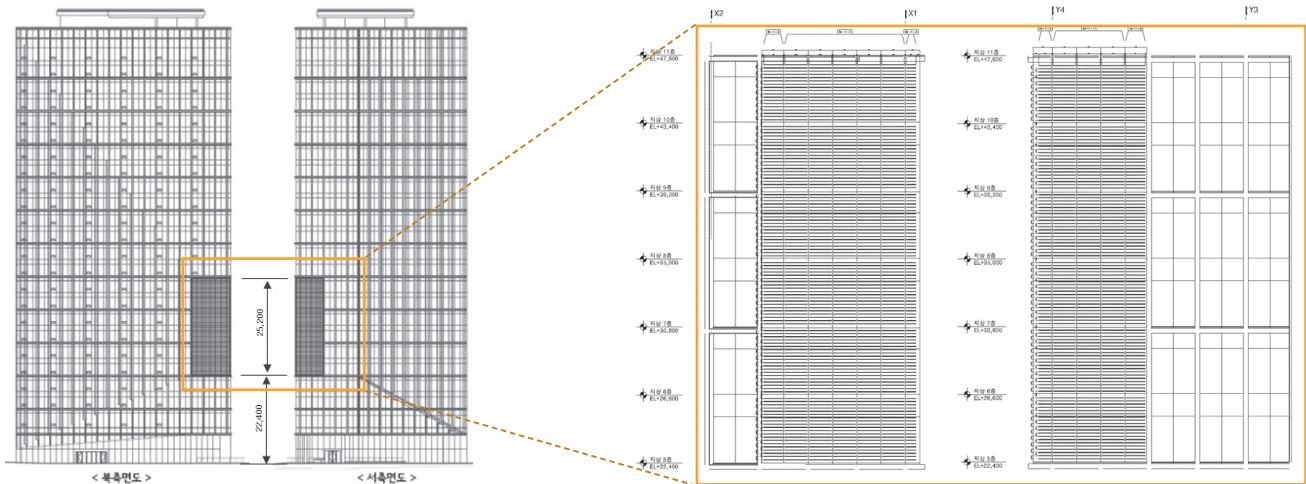


그림 4 북측면, 서측면에서의 미디어파사드 연출 범위

3-2. 연출방식

미디어파사드 스크린은 높이 24M, 폭 16.8M의 공간에 200W x 245h pixels의 LED 해상도로 구성되었다. 이는 흔히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전광판의 해상도에 비해 낮은 사양을 갖는다. 실내에 설치되어 오피스 내부에서 실외 조망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구가 일정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했던 이유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전광판과 같은 목적이 아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현대예술 작품을 표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의 움직임과 형태를 인지 가능한 해상도로 설정하여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은 1024단계의 회색조로 설계하였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입지적 특성과 고급 업무시설에 적절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RGB 색상을 사용하기보다 회색조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기구는 노출되지 않도록 커튼월 내부에 상하 200mm 간격(층과 층 사이는 420mm)으로 설치하고,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함으로써 실내에서의 미관을 고려했다. 점검구와

탈부착 가능한 open형 구조를 적용하고, 조명기구의 운영 시스템은 전원과 통신선을 직렬로 배치하여 시공과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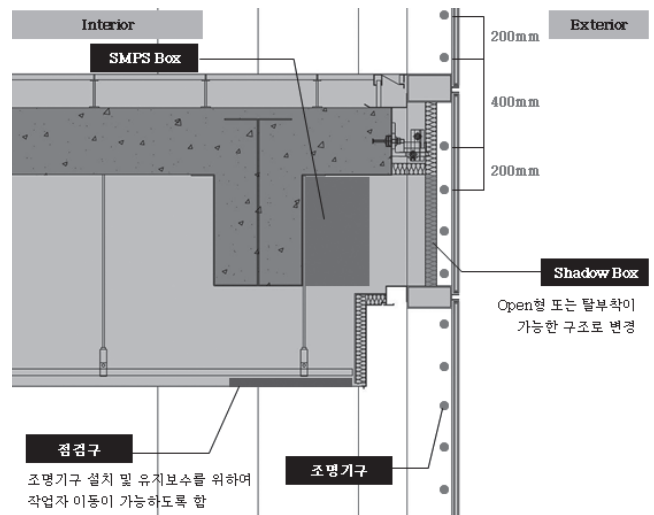


그림 5 미디어파사드 기구 설치 방법

4.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미술장식품)

4-1. 개요

미디어파사드의 영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매체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가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대상지에서는

네 작가의 각 각 다른 컨셉의 작품을 요일별로 상영하여 작품과 공간, 그리고 일상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미디어파사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일몰 후 30분씩 23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표 1 미술장식품 개요

번호	구분	작가명	작품명	소프트웨어 구성
작품 1	미디어아트	이용백	Breads of Water	미디어아트 콘텐츠(5분 영상) MPEG4, AVI
작품 2	미디어아트	지니서	On the Move	미디어아트 콘텐츠(10분 영상) MPEG4, AVI
작품 3	미디어아트	김민선 (MIOON)	Fluid Movement	미디어아트 콘텐츠(5분 영상) MPEG4, AVI
작품 4	미디어아트	Jaume Plensa	Seoul Close-up	미디어아트 콘텐츠(10분 영상) MPEG4, AVI

4-2. 작품_1

- 작품명 : Breads of Water
- 작가명 : 이용백
- 작품설명

이 작품은 물방울의 흔들림과 움직임을 통해 건축의 표피에 유기체의 생명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현미경으로 확대시킨 것 같은 물방울의 이미지는 마치 보석과 같이 영롱하게 반짝

이며, 스스로 미세하게 진동한다. 미세하게 진동하던 물방울은 생명체처럼 결합하고 또 다시 분열되며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물방울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와 유기체적인 미묘한 움직임을 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이 반복되는 을지로 일대에서의 본 작품의 상영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짧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6 작품사진/ Still Cut_ 작품 1

- I.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 ▶ II. 경관조명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스테이트 타워 남산 (2011)'
- III.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사례

4-3. 작품_2

- 작품명 : On the Move
- 작가명 : 지니서
- 작품설명

On the Move건축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건물은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숨쉬고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대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건물의 비디오 스크린을 생명을 표현하는 건물의 눈으로 상상하여 프

레이의 내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Fluid Movement는 건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들의 사회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작품은 아무것도 없는 3차원공간에서 시작하고, 공간에 사람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몸동작으로 의미 있는 단어들을 만들어 낸다.

이 작품은 5분간의 비디오 아트로 3개의 시나리오와 그 사이를 이어주는 3개의 인터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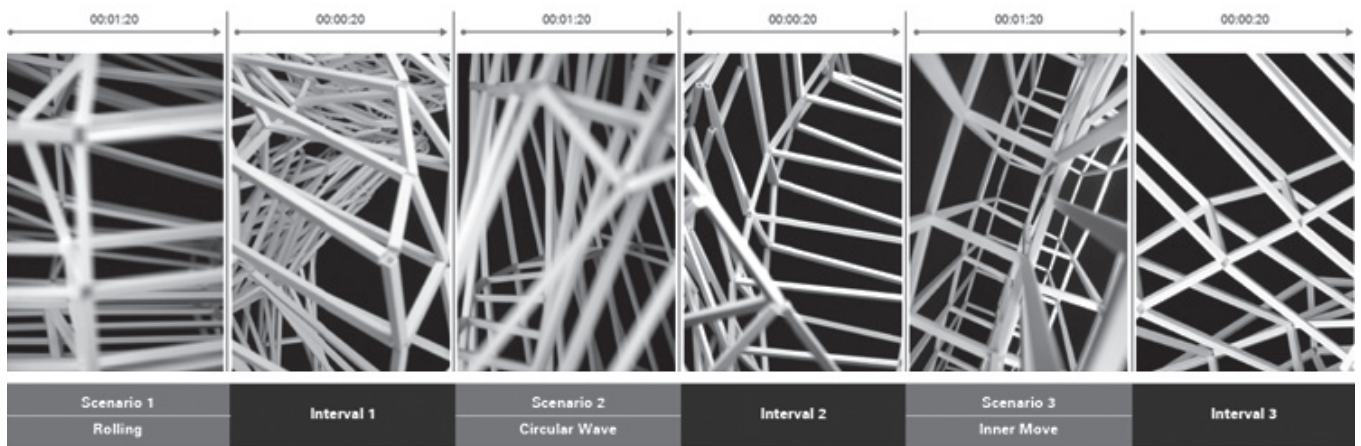


그림 7 작품사진/ Still Cut_ 작품 2

4-4. 작품_3

- 작품명 : Fluid Movement
- 작가명 : 뫼(김민선)
- 작품설명

1. 무한한 우주의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유동적인 분열에 의한 존재의 탄생의 과정과, 그 분열된 존재가 사람의 형상과 움직임으로 발전된다.

2. 분열된 존재인 사람의 형상은 현대의 건축적 구조물 안

에서 생활하며 생활의 감정들을 문자로 표현한다.

3. 여기에 사람이 나타나 몸 동작으로 알파벳 모양을 만들어 낸다. 인간 개개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텍스트'들은 그 텍스트의 내용 (인간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감정 혹은 개념)과 더불어, 섞여진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은 인간들의 동작이미지들은 보는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과 삶에 대한 투사를 유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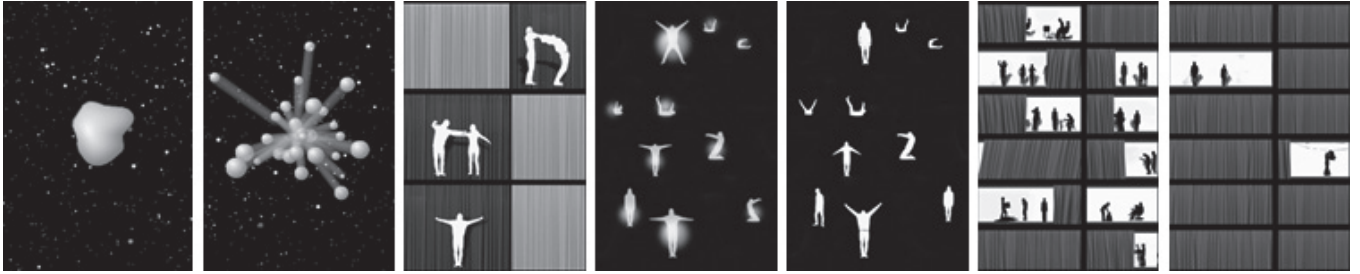


그림 8 작품사진/ Still Cut_ 작품 3

4-5. 작품_4

- 작품명 : SEoul Close-up
- 작가명 : Jaume Plensa
- 작품설명

<Seoul Close-up>은 시간과 기억의 순회, 그리고 순회 과정에서 연관되는 다른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언어적 기호와 상징으로 함축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상형문자 혹은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가 등장한다. 스쿼시 공이 벽에 부딪치듯이 문자들이 사변에 튕겨나가며 부유한다. 점차 희미해지듯이 사라지면 다음 기호가 나타난다. 각 각의 기호들은 생성되었다가

점차 희미해지듯이 사라지다가 다음 기호로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작품은 과거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시대의 거울이자 미래로의 이어짐을 표하고 있으며, 이로써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시공간의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본 작품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작품 감상 시점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것이며, 작품의 의도와 별개로 절제되고 세련된 영상미로 인해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9 작품사진/ Still Cut_ 작품 4

I.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 II. 경관조명으로서의 미디어파사드 '스테이트 타워 남산 (2011)'

III.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사례

5. 연출현황 사진



그림 10 State Tower 남산 야간경관

저·자·소·개

정 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디자인과졸업(공간/디자인 박사)

-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KALD)회장

- 북미조명학회(IES)회원

- 세계조명디자이너협회(PLDA)회원

- ALDA(Asian Lighting Designer's Association)위원회 위원

- AALD(Asian Association Lighting Designers)이사

- 이온에스엘디(주) 대표이사